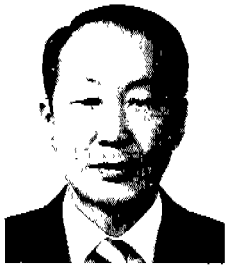


# 新年度

## 電氣工業의 方向



張炳贊

大韓電氣協會 副會長  
利川電機工業株式會社 社長

八十年度を 흔히들 最惡의 해라고 하여 왔다. 그러나 昨年에 있어서도 모든 問題가 解決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景氣는 不透明하며 施設投資는 停滯되고 特히 年末에 와서는 中小企業의 倒産이 늘어나고 있으며 大企業들도 大部分 많은 赤字를 나타내고 있는 매우 어려운 實情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어려운 環境속에서 施設財를 生産하는 電氣工業이 果然 育成되어 나갈 수 있을가 憂慮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確實히 이 工業은 技能올림픽 四年綱를 차지한 우리 韓國사람에게는 比較優位性을 가진 工業으로서 잘 發展만 시킨다면 國民主導

産業으로서도 제 몫을 充分히 할 수 있는 工業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는 冷靜히 이 工業의 特性과 그간의 經緯에 關聯하여 다시 한번 檢討해 보기로 하자.

이 工業의 特性은 電氣와 關聯된 機械工業으로서 무엇보다도 技術의 蓄積이 問題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必要조차 없을 것이다. 裝置産業이나 組立工業과는 달라서 獨自의인 技術이 必要하며 日進月步의 發展과 蓄積이 必要하다. 過去 우리들의 足跡은 과연 이러한 點에서 國內外的 周圍環境에 「맞춰」되어 發展되어 왔던가, 이 點에 있어서도 時代的 責任도 있겠지만 經營者나 技術者들이 다같이 生覺해 보아야 할 問題가 아닌가 生覺된다.

다음은 品質管理와 生産性의 問題인데 그간 高度成長期를 통한 極甚한 「스카우트」와 「로테이션」으로 因하여 從業員에 對한 教育·訓練을 定着시키는데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不良率은 日本이 이미 數年前에 0.1線을 克服하고 P.P.M에 挑戰하고 있는데 比하면 너무나도 距離가 멀어가고 있으며 生産性도 平均 三倍以上の 差異를 좁히지 못하였다. 이것은 同時에 人件費 三分의 1이라는 長點을 뒤집어 놓는 結果가 된다. 따라서 價格競爭力을 相對的으로 低下시키는 結果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음은 原資材의 輸入依存度가 높다던가 豫算會計法이 잘못되어 品質의 差異가 度外視되어 있다던가 等等의 여러가지 어려운 事由를 찾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역시 國內市場과 事業規模에 關聯된 問題일 것이다.

電氣工業協同組合의 推算에 依하면 回轉機·靜止器 合하여 八一年度 生産額은 二千三百億圓으로 보고 있으며 稼動率 五割로 評價하고 있다. 그러나 最大生産能力은 作業量과 生産性을 考慮에 넣는다면 協同組合이 生覺하고 있는 것 보다는 倍가 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電氣工業도 機械工業一般의 運命과 달리할 수 없이 國際競爭力을 가질 수 있는 經濟單位는 대체로 말하여 國內需要의 約 四~五倍에 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

기에 당연한 結論으로서 先進國을 指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國際競爭力에 比較優位性을 가진 種目は 內需의 四~五倍의 規模로서 出發하여 적어도 製品의 半以上을 輸出하여야 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바로 이 點에 問題의 發端이 있었던 것이다. 즉, 需要는 施設能力에 比하여 四~五분의 一 밖에 안되며 輸出은 뜻대로 잘 안된다 해도 赤字가 난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自然 無意味한 過當競爭의 惡循環을 招來하는 것이다.

國內外的 모든 條件을 考慮해 볼 때 突破口는 역시 輸出이 主導되어야 한다고 본다. 輸出競爭力의 要件으로서는 一般的으로 말하자면 技術蓄積·品質管理·生産性向上等 絶對要件이 있으며 人件費·原資材를 비롯하여 系列化培盤·엔지니어링·마케팅·서비스體制 등을 또한 舉示할 수 있다.

韓國의 이 工業의 發展은 期待보다 매우 늦은 감은 있으나 個別商品으로서 이미 部分的으로 國際競爭力을 갖추고 있으며 餘他部分에 있어서도 조금만 더 水準을 높여준다면 充分히 競爭力을 갖출 수 있는 段階에 到達하였다고 본다. 다만 餘他條件으로서 輸出로서는 過去の 負債元利金を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萬若 政策으로서 이러한 點을 例를 들면 高利를 低利金融으로서 代置한다면 輸出에 對한 「인센티브」를 初期에 어느程度 준다던지 하면 政府가 八一年度 目標로 한 八千餘萬弗 뿐만 아니라 몇해 안가서 五億弗 線은 능히 突破할 것으로 믿어진다. 그뿐아니라 그 餘勞로서 아직도 輸入되고 있는 二千億원에 가까운 部分을 또한 第五次 開發期間중에 七割以上을 國產代置해낼 수 있을 것이다.

近者 石油化學을 爲始하여 鐵鋼·一般機械工業等 重要 基幹工業이 經營難으로 허덕이고 있어 早晚間 基幹工業에 對하여 再檢討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電氣工業에 있어서도 全般的으로 再檢討가 있을 것으로 믿는 바이다. 그러나 이 時點에 있어 가장 重要한 것은 企業의 過重한 負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 생

覺된다. 그리고 系列化·專門化도 性質에 따라서는 果敢히 推進해 나가야 하겠지만 基本的으로는 善意의 競爭體制로 誘導하여 보다 많은 部分이 國家와 民族을 爲하여 使命感을 가지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여하튼 앞으로 電氣工業의 方向은 輸出이 自救策도 되겠지만 同時에 輸入되고 있는 部分의 過半을 國產化할 수 있는 關鍵이기도 한 것이다. 그 理由로서는 特殊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거의 「엔지니어링」과 關聯되어 있는 까닭이다. 現在 電氣機器의 輸出은 大部分 單品으로서 아직도 木格化되고 있지는 않으나 早晚間 「프랜트」輸出로 까지 發展할 것이며 그렇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은 絶對要件이 되는 것이다.

現下 世界的 不景氣라 하여도 產油國 뿐만 아니라 後進國까지도 工業化·近代化의 波瀾는 높아가고 있어 비단 發·配電 設備뿐만 아니라 工場建設·公共施設等이 急激히 늘고 있어 電氣製品의 需要는 漸漸 늘고 있으며 最近에 와서는 「턴-키-베이스」의 樣相을 띠고 있는 까닭에 「프랜트」輸出로서의 機會는 漸漸 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電氣工業이 좀 더 「定着性」을 가지고 品質管理와 原價節減 等に 「專念」하고 最近 急速히 發展하고 있는 「과워 엘렉트로닉스」를 조금만 더 익힌다면 이 工業은 輸出特化 產業으로 急成長할 것이며 一般建設 輸出에 뒤를 이어 이번에는 電氣와 機械의 「엔지니어」들을 同伴하여 一層 高次元의 몫을 할 것이다.

諸般事情이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이 工業을 內需産業으로서만 閉鎖시킨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過去에 施設한 工場들은 永久히 死藏될 것이며 앞으로 第二의 經濟跳躍은 무엇으로 成就할 수 있는 것인지 甚히 憂慮되는 바이다. 이와같은 境遇에는 안이하게만 生覺하지 말고 次元을 한 段 높여서 無限한 可能性을 찾아야 하지않나 生覺된다. 따라서 比較優位性과 發展性을 充分히 갖고 있는 이 工業을 심지어는 特殊法을 만들어서라도 輸出主導産業으로 育成하여야 한다고 본다.